

말씀을 꿀송이처럼, 복된교회 ‘블레! 꿀송이 말씀암송대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시 119:103).”

복된교회(유우열 목사)는 2024년 송구영신예배에서 한 가지 비전을 쫓았다. 가치관이 혼돈한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다니엘처럼 분별하며 살아가는 세대로 세우자는 것이었다.

새해를 여는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된 유우열 목사의 간절한 바람은 이후 ‘블레싱 꿀송이 말씀암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프로그램과 행사는 넘쳐나지만 정작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시대에, 다음세대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심어 주자는 것이 이 대회의 출발점이었다. ‘꿀송이’라는 이름 그대로, 외워야 할 속제가 아니라 입에 꿀보다 단 말씀의 맛을 다음 세대가 직접 경험하게 하자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제1회 대회에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76명의 다음세대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암송 본문은 ‘네비게이토 주 제별 성경암송 240구절’, 어문들도 입두를 내기 어려운 분량이다. 대회는 30구절을 암송하는 1단계부터 240구절 전체를 암송하는 7단계까지 단계별로 진행되었고, 각 단계마다 부서 교역자가 시험관이 되어 누적인 구절 가운데 부작위로 빠른 암송을 암송하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 8단계에서는 전체 240구절 가운데 부작위로 선정된 70구절을 암송해야 했다. 교회는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장학금을 마련해 도전을 격려했다. 이는 경쟁의 상금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아이들의 수고를 귀히 여기고 다음세대에게 아낌없이 부자하겠다는 교회의 마음이었다.

백 달의 여정 끝에 세 명의 학생이 최종 관문인 8단계를 통과하며 온 교회의 축하 속에 첫 대회의 우승자로 세워졌다. 이들은 각각 유치부와 유년부, 그리고 중등부의 학생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 세 사람 가운데 이제 겨우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240구절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부작위로 주어진 시험까지 통과한 그 작은 입술 앞에, 성도들은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어른들도 버거워하는 분량을 어린 아이가 끝까지 감당해 낸 그 모습은, 말씀을 향한 순전한 사모할 앞에서는 나이도 배움의 깊이도 결코 장벽이 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온 교회에 다시 한번 새겨 주었다.

2026년 제2회 대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제1회 우승자들은 ‘2레벨’로 올라가 네비게이토 DEP 242구절이라는 새로운 본문에 도전하고, 그 외 참가자들은 ‘1레벨’로 기존 240구절에 도전하는 이원화 방식을 도입했는데, 한 번의 우승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려는 취지였다. 5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다섯 명의 도전자가 파이널 무대에 올라, 전 구절 가운데 부작위로 선정된 35구절을 온 교회 앞에서 공개 시연하는 감격을 누렸다. 유년부와 초등부, 중등부를 지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를 아우르는 이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한 무대에서 같은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배와 같았다. 파이널 당일에는 참가자 개개인의 소개 영상과 함께 한 사람씩 입장하는 순서를 마련했고, 메달과 트로피, 증서를 수여하며 말씀을 붙든 아이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 주었다.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가운데, 예배당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감격과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다.

이 열매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 등하굣길과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까지 말씀을 되뇌었던 학생들의 땀, 그리고 결에서 구절을 읽어

주고 함께 부름 끌어 기도도 동행한 부모들의 헌신이 그것이다. 아직 글을 읽는 것조차 서툰 어린 자녀를 무릎에 앉히고 한 구절씩 토박토박 읽어 주며 함께 외운 부모들이 있었기에, 그 작은 입술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었다. 아이의 마음에 말씀 한 구절이 새겨지기까지, 온 가정이 함께 씨름한 시간이었다. 대회를 마친 한 참가자는 “말씀을 외우는 것이 삶 속에서 위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기도 중에 암송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셔서 기도가 더 깊어졌다”고 나누었다. 한 청년은 “사실 말씀에서 멀어지던 때였는데, 이 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말씀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 대회 후 진행된 설문에서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분량이 어려웠다고 답했지만, 그럼에도 75%가 다음 대회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 여정이 부담을 넘어서는 기쁨이었음을 보여 준다. 장학금을 바라보고 시작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서 아이들이 만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 참가자의 고백처럼 “외우기에 급급했던 말씀들을 다른 상황에서 다시 묵상하게 되었을 때 은혜가 배가 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한 참가자는 “우리를 통



과하게 하시고 탈락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배웠다”며, 성적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청년은 “말씀이 입에 배어져 날마다 생각나고,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른다”고 고백했다. 대회는 끝났지만, 학생들의 마음에 심긴 말씀은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블레싱 꿀송이 말씀암송대회’를 이끌어온 유우열 목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들의 입술을 보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는 다음세대가 결코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다만 도전할 자리를 만나지 못했을 뿐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열어 주기만 하면, 아이들은 반드시 말씀 앞에 응답합니다. 오늘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 한 구절이, 훗날 세상 한복판에서 흔들릴 때 그들을 붙드는 맛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블레싱 꿀송이 말씀암송대회’는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직접 일궈 낸 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향한 간절함과 온 교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두 번의 대회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음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는 탄식적 교계에 가득한 오늘, 복된교회는 탄식 대신 말씀을 심는 길을 택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좇기보다, 아이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는 길을 걷는 것이다. 마음에 새겨진 240구절의 말씀은 아이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다시 살아나 그들을 붙들 것이다.

한 참가자는 설문에서 “무슬림도 꾸란을 달달 외운다”는데, 우리 다음세대도 말씀암송으로 살아내길 바란다”는 소망을 남겼다. 그 소망처럼, 이 작은 도전이 성결가족 모든 교회로 번져 나가기를 소망한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다음세대의 손에 말씀을 쥐어 줄 때,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으로 무장한 다니엘과 같은 세대로 굳게 일어설 것이다.

상단의 QR코드를 통해 대회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복된교회 제공

건강 칼럼

조생구 원장
한사랑병원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임상증후군으로 7월부터 무더운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

원인균 중 살모넬라균이 많은데 오염된 패드고기, 튀김류, 김밥, 닭고기, 햄 등이 원인이며 복통, 설사, 오한,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비브리오 식중독은 바다 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주로 어패류와 그 가공품이 원인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장균 0~157은 오염된 고기, 우유,

말아야 한다.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조리된 음식은 깨끗한 식기에 담는다.

■ 식중독 응급처치 방법

-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음식 대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탈수를 예방한다.
- 수분은 끓인 물이나 보리차 1ℓ에 찻숟가락으로 설탕 4개, 소금 1개를 타서 보충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온 음료도 좋다.
- 설사가 1~2일 지나도 멎지 않을 때, 복통과 구토가 심할 때, 열이 많을 때,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는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다.
- 설사약은 학부로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류가 없는 담백한 음식부터 섭취한다.

■ 일반적인 식중독 예방수칙

식중독

치즈, 무순 등이 원인이며 피 섞인 설사, 심한 경우 복부 경련, 용혈성 요독증 등을 유발한다. 환자의 0.5%가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감염되면 별 증상이 없이 지나가기도 한다.

식중독균은 대체로 열에 약하고 저온에서 잘 번식하지 못하므로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남은 음식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을 따로 보관하고 날 음식을 찢칼과 도마는 다른 식품을 자를 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재를 손질할 때도 날고기를 찢칼로 다듬지 말고 상추 등 엽채류를 씻을 때도 한 잎씩 흐르는 물에 씻고 잎 모양이 복잡한 브로콜리 등은 뜨거운 물에 1분 동안 데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리를 하기 전 반드시 20초 이상 바누로 손을 씻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포도 상구균의 경우 인구의 50%가 손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어패류는 반드시 5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한 뒤 75도에서 15분 이상 끓여 조리해야 한다.

세균이나 독소가 저온에서는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음식물의 냉장 보관을 권한다. 그러나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쇠고기는 3~5일, 우유는 2~4일, 어패류는 1~2일 이상을 넘기지

- 안전성을 위하여 가공된 식품을 선택한다. (식육, 어패류, 야채 등의 날 식품은 신선한 것 구입)
- 모든 음식물은 익혀서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는다.
- 소리된 식품은 소심해서 저장한다.
- 한번 소리된 식품은 철저하게 재가열하여 먹는다.
- 날 음식과 소리된 식품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식육이나 어패류 등은 비닐봉지나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
- 음식 조리 전이나 먹기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 부엌의 모든 표면을 자주 깨끗이 한다. (소리대, 노마, 칼, 행주 등은 항상 정결 유지)
- 식품은 곤충, 쥐, 기타 동물들을 피해서 보관한다.
- 가급적 음식물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피리를 없앤다.
- 상가·예식장 등 집단 급식 때 날 음식 적대를 삼간다.
- 생선을 손질할 때는 아가미·내장 등을 제거한 뒤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 끓여 먹고 칼·노마도 잘 소독한다.
-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육류·어패류를 만지지 않는다.

2026학년도 후기 신입 및 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및 수업 연한

목회전공(M.Div.)

지원 자격

목회전공, 선교전공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신학교졸업(예정)자
- 대학졸업과 동등하다고 본원이 인정하는 자
- 편입생은 전적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세례(침례)교인으로 사명감이 있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

전형 일정

- 원 서 교 부 : 2026년 7월 1일(월)부터 2026년 8월 21일(금)까지
문의전화 ☎ 02-725-9964, 9965

나. 원서교부처 : 성결교신대원 교학과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kts.or.kr)

- 접 수 기 간 : 2026년 7월 1일(월)부터 2026년 8월 21일(금) 17:00까지
- 원서접수처 : 성결교신대원 교학과 ☎ 02-725-9964, 9965
- 접 수 방 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면접 및 전형 일시 : 2026년 8월 25일(월) 오후 1시
- 합격자 발 표 : 2026년 8월 26일 (화) 오전 11시
- 등록 기간 : 2026년 8월 26일(화) 부터 2026년 8월 28일(금) 까지
- 사이버학과는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서류와 현장 면접을 통해 사이버학과 진행 여부 결정.

전형 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제출 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이력서 1통
- 대학 및 신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 대학 및 신학교 성적증명서 1통
- 추천서(소정양식) 1통
- 편입생은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1통

원서대 및 전형료

- 원서대 : 없음
- 전형료 : 50,000원



성 결 교 신 대 원
SUNGKYUL THEOLOGICAL SEMINARY

